창사 64년 새 역사를 써나가겠습니다
남양건설

광주매일신문

AI가 광주매일신문을
똑똑하게 읽어줍니다.

제8249호 대표전화 (062) 650 - 2000 kjdaily.com 2022년 8월 5일 금요일 (음력 7월 8일)

제3순환도로 내년 국비 확보 난항 우려

금천-화순 구간 신규반영 불구 B/C 낮아 '노심초사'

광주시 "혁신도시 접근성 등 감안 사업 추진 절실"

올해 초 정부의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신규 반영된 광주 제3순환고속도로 4구간 나주 금천-화순간 건설이 경제성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B/C(비용 대비 편익)가 경제성 판단 기준 '1.0'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예상돼 정부가 내년 국비 예산 배정에서 후순위로 넘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4일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제3순환고속도로 나주 금천-화순 구간(18.6㎞)을 신규 반영했다.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이 사업은 제3순환고속도로 4구간의 일부로 총사업비 1조521억원(전액 국비)으로 오는 2033년까지 추진된다.

이 구간이 정부 계획에 포함됨에 따라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설계 등 절차에 따라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시는 광주 도심부 교통 혼잡 완화와 광역도시간 이동 편의, 교통 안전성 제고를 위한 대도시권 방사형 제3순환고속도로의 간선도로망 구축에 주력해왔다.

제3순환 고속도로는 금천-본량 간 제1구간(15.5㎞)과 장성-담양 간 제3구간(25.3㎞) 건설이 완료됐다. 2구간인 본량-장성 간 제2구간(9.7㎞)은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금천-화순 구간도 국가계획에 반영된 만큼 내년부터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전망이 밝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속도로 건설의 경우 통상 '우선사업'과 '일반사업'으로 나뉘는데 금천-화순 구간은 '일반사업'에 속한다. 전국에 '우선사업'으로 분류된 고속도로가 많아 정부가 '일반사업'인 금천-화순 구간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게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무엇보다 광주·전남은 타 지역보다 인구·교통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금천-화순 구간 역시 경제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B/C는 1.0 이상이면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분류된다. 광주시는 금천-화순 구간의 B/C가 1.0 이하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광주시는 금천-화순 구간이 교통 분산 효과와 함께 빛가람혁신도시, 광주 남부권 접근성 제고, 주변 산업단지 물동량 수송 지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만큼 조속한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보고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내년 정부 예산에서 국비 확보에 성공하면 광주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2024년 실시설계 등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백남인 도로과장은 "제3순환고속도로는 결국 시민들에게 모든 편익이 돌아가는 사업"이라며 "국가계획에 반영된 만큼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와 협의를 통해 예타를 거쳐 실제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달 18일 열린 국민의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제3순환고속도로 금천-화순 구간 건설을 위한 예산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박선강 기자

무등산수박 본격출하 입추(立秋)를 사흘 앞둔 4일 오전 광주 북구 금곡동 무등산수박 정보화마을 기슭 노지에서 재배농민들이 수박계의 명품으로 불리는 광주 대표 특산품 '무등산수박(일명 푸랭이)'을 수확하고 있다. 일반 수박보다 2-3배 가량 큰 무등산수박은 5일부터 북구 금곡동 공동직판장에서 8㎏ 3만원, 14㎏ 9만원, 16㎏ 11만원, 18㎏ 14만원, 24㎏ 26만원에 판매된다. 올해 무등산 수박 생산량은 9개 농가에서 지난해와 비슷한 2천500여통 수준이다. /김애리 기자

전남 농촌 인력난 숨통 트인다

외인근로자 18개 시·군 1천763명 확보

외국 인력 도입기관 설치 정부에 건의

법무부가 농촌인력으로 투입할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남지역 배정 인원을 18개 시·군 1천763명으로 확정, 도내 농촌 인력난 해소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제도는 농가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단기간(1주일 이상) 고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가 매년 상·하반기에 각각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 고용인원을 배정한다. 올해는 전국 117개 시·군에 1만7천147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했으며 전남이 10.3%를 차지했다.

전남 배정 인원은 지난해(343명)의 5배 규모다. 지난해 전남도가 농촌 인력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에 계절근로제 개선을 건의한 것이 반영돼 시행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개선으로 소규모 농가 초단기 고용, 한시적 계절근로 상시화 등이 허용돼 중소 규모 농가에서도 외국인 고용이 가능해졌다.

인력을 배정받은 시·군은 가을철 농번기 등 농가 수요 시기에 맞춰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올해 봄철 농번기 동안 도내 농가에서 고용한 외국인근로자는 해외입국 197명, 국내체류 48명 등 총 245명으로 인력난 해소에 보탬이 됐다. ▶2면에 계속 /김재정 기자

알 림

70년대 광주민주화운동 사랑방

'봉심정' 활용 방안 토론회

8월 26일(금) 오후 1시30분, 광주 남구청 대회의실

광주매일신문과 윤영덕 국회의원실은 오는 8월26일 광주광역시 남구청 대회의실에서 '봉심정' 활용 방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1970년대 광주민주화운동 사랑방 봉심정 어떻게 하나?'라는 주제로, 1969년부터 광주지역 민주 인사들이 모여 공부하고 토론했던 '봉심정'의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광주의 새로운 정신적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봉심정에서 활동했던 주요 인사들이 당시의 상황을 토대로 70년대 광주의 민주화 운동사를 정리하고 80년대 광주 민주화운동과의 연계 고리를 찾아 그 역사를 반추하고자 합니다. 또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봉심정의 향후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대안 제시를 통해 또 하나의 '광주정신의 산실'을 찾기 위함입니다.

광주매일TV를 통해 생중계될 이번 포럼에 시·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행사명 : 1970년대 광주민주화운동 사랑방 '봉심정' 어떻게 하나?
- ●발 제 : ▲이재의 5·18기념재단 연구위원
- ●토 론
  - -좌 장 : 김덕진 광주교육대학교 교수
  - -토론자 : ▲곽성용(사)전남대학교 민주기념사업회 사무처장 ▲박종찬 광주대학교 교수 ▲오영순 광주광역시 남구의원 ▲윤건열 광주광역시 민주인권과장 ▲전용호 5·18진상조사위원회 전문위원
- ●일 시 : 2022년 8월26일(금) 오후 1시30분
- ●장 소 : 광주광역시 남구청 대회의실
- ●주 최 : 윤영덕 국회의원
- ●주 관 : 광주매일신문·광주매일TV
- ●후 원 : 광주광역시 남구청
- ●문 의 :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062-650-2078)

광주매일신문

주말·휴일 '찜통더위' 기승

이번 주말·휴일에도 광주·전남은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4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에 이어 광주·전남 전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광주·나주·담양·구례·순천·광양엔 폭염경보가, 나머지 지역엔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쏟아졌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성전(강진) 9.5㎜, 성삼재(구례) 7.0㎜, 유치(장흥) 4.0㎜, 마량(강진) 3.5㎜, 보성 2.5㎜, 완도 2.3㎜, 강진 2.0㎜로 집계됐다.

기상청은 무더위와 함께 소나기가 내리는 날씨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예보했다.

5일 광주·전남지역 최고기온은 30도를 웃돌겠다. 광주·광양·구례는 34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산발적인 비로 휴일 최고 기온은 조금 내려가겠다. 6일 최고기온은 담양·화순·순천·광양·구례·곡성·완도 33도, 7일 최고기온은 광주·목포·순천·광양·나주 33도로 예보됐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가 33-36도까지 올라 매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며 "밤 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은 만큼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재영 기자

Today

김경수의 광주땅 '최초' 이야기 5면
CCTV 느는데 관제인력 태부족 6면
외인 투수 돌아오자 필승조 이탈 16면

광주매일신문

판매중!!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주·전남 당선자 수록
2022 광주·전남지방자치총람 발간!

민선 8기 광주·전남의 미래비전을 담은 유용한 자료집
당선인 및 가족, 지인에 소장가치 높은 선물로 추천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주·전남지역 광역단체장,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들의 공약과 비전을 총망라해 집대성한 700여 페이지 분량.
■ 광주매일신문이 야심차게 제작한 지방자치총람은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유용한 기초자료로, 지방자치의 의미와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길라잡이.
■ 2022광주·전남지방자치총람은 광주매일신문이 유일하게 제작한 지방선거 자료집.

▶구입문의 :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062-650-2078)
▶입금계좌 : 광주은행(016-107-323257 : 예금주-㈜광주매스컴)
▶정 가 : 20만원

CMYK